현대차그룹 "2025년까지 美에 105억 달러 투자"

정의선 회장, 바이든 대통령 면담…로보틱스·AI 등 50억 달러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배터리셀 공장 신설 등 55억 달러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6조3000억원 규모인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이다. 이들 분야의 미국 현지 기업에 더욱 투자를 늘리거나 새롭게 투자해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전날인 지난 21일 미국 조지아주에 55억달러를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의 이날 발표를 더하면 미국에 총 105억달러를 신규 투자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신설하는 전기차 생산 거점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다. 해당 공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공장은 1183만㎡ 부지 위에 연간 생산능력 30만대 규모로 지어진다.

해당 공장에서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효율성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급속한 전동화 추세에 맞춰 전략적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 50%까지 확대, 충전설비 50만기 설치, 보조금 증대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유리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공장은 조지아주의 기아 미국생산법인과 400㎞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미국생산법인과 함께 부품 협력사 및 물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 공장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차량의 성능과 상세 사양에 맞춰 최적화된 배터리셀을 현지에서 조달해 고효율, 고성능, 안정성이 확보된 높은 경제력의 전기차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시에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5년 신설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첫 현지 생산을 시작한 2005년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 가동 이후 20년 만에 전기차만 생산하는 완성차공장을 보유하게 된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4월 앨라배마공장의 전동환 생산라인 구축에 3억달러(약 3700억원)를 투자함으로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연내에 생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기차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미국 시장에서 이처럼 전동화 추진을 가속화해 미국에서 2030년 84만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소중한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탄소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 203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를 40~50%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한 기간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투자 발표까지 한 것은 정 회장이 유일하다. 정 회장은 발표 시간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과 35분 정도 독대했다.

정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한 기간 시간을 내줘서 매우 감사하다.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회사든 가장 숙련된 성실한 근로자와 협력하는 데 따른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신성장산업 핵심은 데이터센터 유치"

한은 광주전남본부 포럼…데이터 생산량 세계 5위 한국, 센터 비중 광주·전남 1%대 등 빈약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내건 광주·전남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국가 또는 민간 차원 데이터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데이터센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경제포럼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광주·전남에 구축 중인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데이터센터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모두 156개이다.

하지만 서울 37.5%, 경기 39.9% 등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지역 비중은 광주 1.6%·전남 1.8%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확보 비용 등이 적어 입지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시설로 꼽힌다.

이 센터는 앞으로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용 AI컴퓨팅서비스 및 실증 인프라 제공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최재효·왼쪽 4번째)가 지난 18일 개최한 지역경제포럼 '광주·전남 데이터센터 현황과 향후 과제' 행사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은 제공〉

전남에서는 현재 광양과 순천에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투자협약이 맺어진 상태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3개), 서부권(7개)을 축으로 한 데이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해 탄소중립 달성이 쉽고 지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입지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곽재도 광주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이 '인공지능의 이해와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신상균 한국 아마존 상무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성호 전남도청 데이터산업팀장과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이 광주·전남·전북의 AI, 데이터센터 등이 긴밀히 연계된 '메가테크(기술)'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1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5	26	28	34	41	42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60,660,671	1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949,185	68
3	5개 숫자일치	1,543,018	2,686
4	4개 숫자일치	50,000	132,413
5	3개 숫자일치	5,000	2,202,914

광주은행 '공부방 69호점' 광산구 하남공립아동센터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9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산구 우산동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를 '공부방' 69호점에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4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지도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칸막이와 의자, 책상 등 학습기구 개선을 도왔다.

염규송 광주은행 부행장과 직원들은 새롭게 단장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간식을 나눠먹으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 광주은행의 장학사업으로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장학생 선정이 6번째를 맞았고,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은 총 4000명(33억원 상당)이 넘었다.

염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우리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래가 보인다 '힐스테이트 영광' 분양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대 84㎡~113㎡ 493세대 규모
교육·생활인프라·광역교통망 우수…단지 옆 계획도로 예정

현대엔지니어링은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영광'〈사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영광'은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동, 총 49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21가구 ▲84B㎡ 193가구 ▲113㎡ 79가구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영광중앙초를 비롯해 영광공고, 영광군립·공공도서관, 영광문화원 등이 가까워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영광군청, 영광터미널시장, 영광종합병원, 도보권 버스터미널 등 생활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밖에 단지 바로 인근 25m 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영광IC를 통한 광역교통망 등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성산과 우산근린공원, 영광생활체육공원 등 녹지와 공원도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영광에 선보이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고유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 선호도 높은 4Bay 구조로 조성된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 공간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고, 주방도 공간 가사 효율성 및 수납을 강화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Hi-oT 시스템, 음성인식 스위치 등과 함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등도 들어선다. 단지 중앙에는 센트럴가든과 양옆으로 어린이·유아놀이터도 조성한다.

여기에 영광은 비규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보유자 중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는 물론,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계약 후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2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 달 9일 당첨자 발표 후 20~23일 4일간 정당계약이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44-51번지 일원에 문을 열었다. 분양문의 061-352-8881.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